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수 빈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수 빈

이 수 빈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이 봉 주

부위원장 한 윤 선

위 원 강 상 경

국문초록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수빈

본 연구의 목적은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직업을 갖고 소속감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음주를 하기 쉽다. 청년기의 문제음주는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날지라도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자원 간 조합으로 인지적 과정이 중심이 되기에 스트레스의 지각과 해석에서의 개인차가 중시된다. 즉, 동일한 실업 상태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이를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스트

레스에 대해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라 인지적 평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처방식 역시 다르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다. 이에 따라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스트레스원(stressor)인 실업 상태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달라지고 문제음주라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의 매개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높은가)? 셋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청년패널(YP 2007) 13차 자료(2019년)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2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68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결혼상태,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업 여부(독립변수)가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매개변수)을 매개로 문제음주 행위 수준(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Baron & Kenny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Sobel-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실업 상태인 청년이 취업 상태인 청년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작동하여 문제음주 수준을 높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실업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업이 개인에게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즉,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 청년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렇게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test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 & Folkman(1984)이 주장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이 검증된 것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업으로 인한 결과 중 문제음주에 초점을 두어 이원적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소득원을 넘어 자아개념 및 정체성과 같은 심리 내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와 연결된다. 특히, 문제음주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구체적인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의 담론에서 나아가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해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적절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YP 2007) 13차 자료(2019)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서 표본을 추출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 자료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도를 비교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

한 개입에 있어서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음주에 대해 실업 청년을 중심으로 초점화된 개입과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음주의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비약물치료 중 하나인 심리·사회적 중재와 관련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태에 개입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몇몇 지방정부에서 실업 상태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과 상담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수혜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청년 실업, 문제음주, 이원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스트레스-대처 모델

학 번 : 2019-24428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8

제 1 절 스트레스-대처 모델 ····· 8

제 2 절 대처로서 문제음주 ····· 12

제 3 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실업 ····· 18

제 4 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2

제 5 절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 29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32

제 1 절. 연구모형 ····· 32

제 2 절. 연구가설 ····· 33

제 4 장 연구방법 ····· 34

제 1 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 34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39

제 3 절. 분석방법 ····· 44

제 5 장 연구결과 ····· 46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6

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52

제 3 절. 가설 검증 ····· 54

제 6 장 결론 ····· 6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8
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 71
제 3 절. 연구의 함의 ····· 76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 82

참고문헌 ····· 85

Abstract ····· 110

표 목 차

<표 1> 종속변수의 문항 내용 ····· 39
<표 2> 매개변수의 문항 내용 ····· 41
<표 3>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 43
<표 4>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 46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47
<표 6> 실업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0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53
<표 8>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 55
<표 9>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60
<표 10>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61
<표 1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 64
<표 12> 매개효과 모형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67
<표 13> 연구결과 요약 ····· 70

그 림 목 차

[그림 1] 스트레스-대처 모델 ····· 9
[그림 2] 연구모형 ····· 32
[그림 3] 연구대상 선별과정 ····· 38
[그림 4] 검증모형 ····· 45
[그림 5] 실업 여부-문제음주 매개관계 결과 ····· 6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의 문제음주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월간 폭음[1]'과 '고위험 음주[2]'를 대표적인 문제음주로 규정하였는데, 문제음주란 부적절한 음주 행위로 사회, 행동 그리고 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 양상을 의미한다(Oslin, 2004). 2019년 기준 전체 성인남녀의 월간 폭음률은 38.7%이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0).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7년 기준 8.7L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L)과 비슷한 수준이나(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9) 2, 30대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63.5%로 17년 조사결과(57.3%)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30대(70.0%)와 20대(66.9%)가 다른 성인 연령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40대는 65.4%, 50대 61.4%, 60대 52.6% 순으로 청년층의 고위험음주 경험 비율보다는 낮은 수치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종합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음과 고위험 음주 경험 등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기의 문제음주에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이 시기의 문제음주가 이후의 문제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 초기 대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음주 행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김경희 외, 2009), 이미 특정 음주 습관이

---

1) 최근 1년 기준으로 월 1회 이상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여성) 또는 7잔 이상(남성),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형성되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여도 절주나 금주 등의 행동 수정이 어렵기에(이중정, 이충원, 2002) 조기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성인기 전체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김순오, 2006; 송태민, 이주열, 김계수, 2012; 신명식, 2002; 이용철, 임복희, 2010; 황지영, 정슬기, 2016)는 활발히 이뤄졌으나, 청년기에 초점을 둔 연구(송인한, 이경원, 정집훈, 2019; 허만세, 장승옥, 2010)는 부족하다. 청년기를 다룬 연구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진열, 2008; 박경민, 이민규, 2005;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이원재, 2004)가 대부분이다. 청년기의 문제음주 수준은 전체 성인기보다는 낮게 나타날지라도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김경희 외, 2009) 중요하다.

또한, 문제음주는 그 자체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WHO, 2018) 심혈관 및 간 질환, 암, 그로 인한 사망 등을 유발한다.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알코올성 치매 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류수일, 2002).

문제음주는 개개인에 대한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는 9조 4,52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인 7조 1,258억 원과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6조 7,695억 원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음주가 이처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로 이어지는 까닭은 음주로 인해 개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종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과 신체 및 정신질환의 치료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김지훈, 강욱모, 2016).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청년기의 문제음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이민규, 1993; 김용석, 1999;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Brown, 1985; Ham & Hope, 2003; O'Hare, 1990). 음주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수, 성격, 음주력, 알코올에 대한 기대, 음주 동기, 스트레스와 대처, 활동 참여, 동료와 가족의 영향 등이 규명되었는데(Ham & Hope, 2003) 이 중 특히 스트레스는 음주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남진열, 2008; 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한금선, 양승희, 전겸구, 2003; Carney et al., 2000; Cooper et al., 1992a; Cooper et al., 1992b; Kidorf & Lang, 1999; O'Hare & Sherrer, 2000; Seeman & Seeman, 1992). 청년기의 스트레스로는 학업 및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이 중 특히 직업을 갖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기에 실업 상태는 청년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동한다(이가영 외, 2015).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 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과열된 취업 시장으로 취업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에 달했다(통계청, 2020). 이는 우리나라 성인 실업률 4.1%의 약 2배로(통계청, 2020) 다른 성인 연령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같은 시기, 30~54세의 실업률은 2.9%, 55~64세의 실업률은 3.2%, 65세 이상 실업률은 6.8%로 모두 청년 실업률보다는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20).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부분 실업자 등을 모두 합친 청년 확장 실업률[3]은 2020년 12월 26%로, 전년 동월 대비 5.2%p 증가하여 그 심각성을 더욱 보여준다(통계청, 2020).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박세홍 외, 2009; 송이은, 2010; Creed & Macintyre, 2001; Paul & Moser, 2009) 특히, 음주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홍대균, 강동묵, 김정원, 2009). 문제음주는 이러한 실업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알코올이 자신의

3)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을 의미한다(통계청, 2020).

고통을 감소시킬 것이라 믿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음주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그런데 문제음주와 같은 대처는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 정서를 증가시키는 등(Aneshensel & Huba, 1983) 신체·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나은 대처가 이뤄지도록 개입이 필요하다.

실업은 건강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Ganley, 2002; Goldsmith, Veum & Darity, 1997;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Sheeran, Abrams & Orbell, 1995;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곤 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내·외집단 구성원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Turner et al., 1987). 따라서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겪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떨어뜨리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이수인, 2007) 음주빈도나 음주량이 증가하거나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권태연, 2011; 김민혜 외, 2018; Zhai et al., 2015).

기존 선행연구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실업 상태일 때 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가설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업이 왜 문제음주를 높이는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으로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라는 대처로 이어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의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라는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며 개입 지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실업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정은석, 강상경, 2015),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기에(권태연, 2011; 김민혜

외, 2018; 이숙현, 2017a; Zhai et al., 2015)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주요한 매개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핀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원적 구조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기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이란 기존의 일원적 자아존중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됨에 따라(Owens, 1994) 긍정적 자아존중감과(self-worth) 부정적 자아존중감(self-deprec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은 각각의 예측요인과 영향력은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이고(강상경, 2006; 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최희철, 2011; Owens, 1993; Owens, 1994) 실증적으로도 일원적 구조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어왔다(강상경, 2006; 김성용, 2014; 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장혜림, 정익중, 2013; Ang et al., 2006; Boduszek et al., 2013; Kahng & Mowbray, 2005; Supple et al., 2013; Vallacher & Nowak,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요인이 아닌 두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업 청년들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둘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둘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소득보장과 고용 중심 직업훈련 및 정책에서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활용하여 청년의 실업(스트레스원)과 문제음주(정서 중심적 대처)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은 청년이 문제음주라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

지적 평가에 해당하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적 사건인 실업에 직면하였더라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데는 개인적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원인적 선행변인)을 통한 인지적 평가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한 스트레스-대처 모델이 이론적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 청년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문제음주를 낮추어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바탕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청년의 실업 상태 여부를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다. 매개변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선정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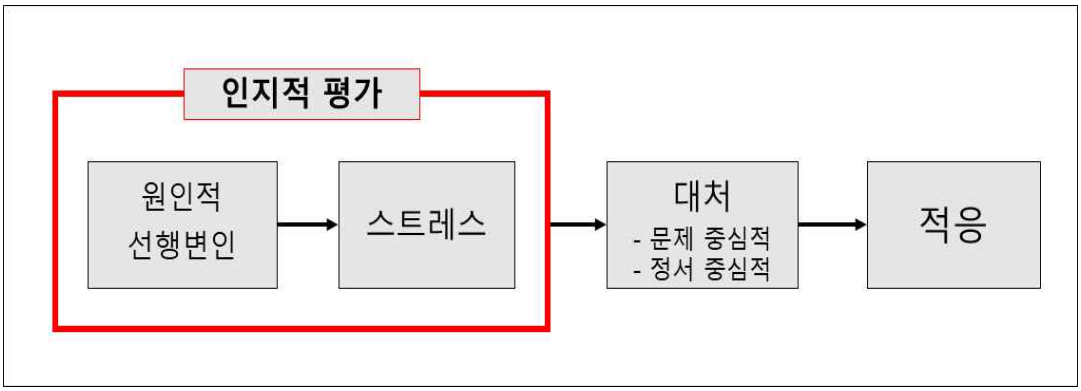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에 따른 문제음주 수준, 그리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룬다. 다음으로 제2절, 제3절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토대로 스트레스원으로서 실업을, 대처로서 문제음주를 상정한다. 왜 실업이 문제음주를 일으키는지 긴장감소가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한, 제4절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며,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매개요인으로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로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고찰한다.

제 1 절. 스트레스-대처 모델

본 연구는 Lazarus & Folkman(1984)이 제시한 스트레스-대처 모델(Stress Coping Model)을 분석 틀로 한다. 해당 모델은 환경상의 자극이나 어려움, 기타 생활사건 등의 요구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의 관점에서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를 논하기 전,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들(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대처, 적응)을 통해 모델의 전반적인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모델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트레스-대처 모델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Lazarus & Folkman, 1984: 19)'를 의미한다. 특히, 스트레스 사건은 개인의 인생 주기와 관련지어 설명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 주기의 제시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신적 시계(mental clock)를 가지고 있다(Neugarten, 1979). 즉, 생활 사건들이 생의 위기(또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그것의 시기에 달려있다. 청년들은 성인 초기에 직업을 갖는 것을 생애주기상 과업으로 여기며 그 시기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실업 상태를 맞게 되면 취업이 되었을 때 기대했던 만족감과 또래로부터의 지지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제3절에서 후술할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환경적 요구와 압력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더라도 그 반응의 정도와 종류에는 항상 개인차와 집단차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22). 사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취약성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매개하는 인지적 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적 평가란 긴장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환경적 자

원(원인적 선행변인)에 의거해 그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평가는 크게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차적 평가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차적 평가는 만약 곤경에 처하게 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 과정에서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상황은 스트레스로 인지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이를 통한 인지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인지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은 원인적 선행변인으로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 중 하나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평가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인 대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인지적 평가를 거친 개인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하게 되는 데 이를 '대처(coping)'라고 한다. 대처는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뉘는데,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가 있고,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가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적극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하는 노력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향한다(이현주, 엄명용, 2013).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아나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별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엄명용, 2013).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문제음주를 소극적 대처 중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하나로 상정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사람들은 술이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켜줄 것이라 믿으며 정서 반응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음주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이런 대처 형

태는 알코올중독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문제-집중적 노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Aneshensel & Huba, 1983). 이는 정서적 고통은 완화하는 데에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부정 혹은 회피의 측면이 있다(Katz et al., 1970; Lazarus & Folkman, 1984: 217).

마지막으로 '적응'의 과정을 갖는데, 적응은 개인과 환경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가기도 하는 과정 모두를 아우른다. 적응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또는 긍정적) 감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신체 건강, 사회적 기능 등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종합하면,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자원 간 조합으로 인지적 과정이 중심이 되기에 스트레스의 지각과 해석에서의 개인차가 중시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인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실업(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대처(문제음주) 역시 영향을 받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같은 실업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제 2 절. 대처로서 문제음주

1. 문제음주의 정의

문제음주는 학자와 나라마다 상이하게 정의되고,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가 부족하여(Clements, 1999) 문헌 간의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먼저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윤명숙과 조혜정(2008)은 문제음주를 과음(heavy drink),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조현섭(2004)은 음주로 인해 가정, 직장 등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가벼운 음주부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까지를 위험 및 유해가 있는 문제음주라고 정의하였다. 국외에서는 문제음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음주 수준(drink rates or level)이고, 두 번째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consequences)이다.

음주 수준과 관련지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음주량이나 음주빈도를 측정했었다. 하지만 이는 폭음(binge drinking) 또는 일시적인 과음(heavy episodic drinking)이라는 용어들을 문제음주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폭음은 지난 2주 동안 한 자리에서 남성 기준 5번(여성 기준 4번)의 표준적인 음주[4]를 의미한다(Wechsler et al., 1995). 몇몇 연구들에서는 술을 마신 특정한 날을 조사하는 등 기간을 좀 더 확장하여 측정했다(Vik et al., 200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적정 음주 기준과 고위험 음주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문제음주의 음주량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WHO(2008)는 적정 음주의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순수 알코올 섭취량으로 하루 40g(약 소주 4잔) 미만을, 여자의 경우 하루 20g(약 소주 2잔) 미만을 권고한다. 한편,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에 대해서는 고위험음주량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이는 맥주(200mL, 알코올 도수 4.5%)를 기준으로 남자 8.3잔, 여자 5.6잔의 양이고, 소주(50mL, 알코올

4) 표준적 음주는 주로 맥주 12oz, 와인 한 잔 4oz, liquor 1.25oz 등으로 정의된다(Wechsler et al., 1995).

도수 17%)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이다.

음주빈도 측면을 살펴보면, Wechsler 외(2000)는 폭음의 빈도를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잦은 폭음인(frequent binge drinkers)'은 지난 2주간 3번 이상을 폭음한 사람을, '가끔 폭음인(occasional binge drinkers)'은 지난 2주간 1~2번의 폭음을 한 사람을, '비폭음인(nonbinge)'는 지난 한 해 동안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지난 2주간은 폭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절제인(abstainers)'은 지난 한 해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정의했다(Wechsler et al., 2000). 이외에도 O'Hare(1997)는 과음을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척도에 따라 한 주에 6번 이상 마신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는 음주량과 빈도만으로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과음한 어떤 이(heavy drinker)는 낮은 수준의 음주 관련 문제를 보이는데, 가벼운 음주를 한 어떤 이(light drinker)는 높은 수준의 음주 관련 문제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White & Labouvie, 1989). 문제음주 정의의 두 번째 영역인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중심으로, Oslin(2004)은 문제음주에 대해 부적절한 음주 행위로 사회, 행동 그리고 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 양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잦은 폭음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집단보다 음주 관련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기에(Wechsler et al., 2000) 음주빈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음주의 정의 기준이 된다. Thombs & Beck(1994)은 음주하는 사람들을 음주 관련 문제와 음주량, 음주빈도의 조합을 통해 4가지 집단으로 구분했다. 비슷하게 Baer 외(2001)도 높은 수준의 위험 음주를 음주량과 빈도, 부정적인 결과들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문제음주를 음주량과 빈도, 음주 관련 부정적인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의한다.

2.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문제음주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다.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남진열, 2008;

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Camatta & Nagoshi, 1995; Carney et al., 2000; Kidorf & Lang, 1999; O'Hare & Sherrer, 2000). 국내 논문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했고 문제음주 집단에 속했다(남진열, 2008;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불쾌감을 증가시키고 지각된 통제감을 저하하기 때문에 음주 행동은 더욱 촉진된다(이유리, 권정혜, 1997).

국외논문들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 대학생보다 보통의(moderate) 스트레스를 느낀 대학생이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O'Hare & Sherrer, 2000). 즉,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대학의 음주 정책을 처음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엔 어렵다. Camatta & Nagoshi(199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원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문제가 나타나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문제 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스트레스원과 알코올 사용률은 관계가 없었다. Kidorf & Lang(1999)도 대학생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알코올 간의 관계에 관한 인과적 증거를 제시했다.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음주 관계의 비일관성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Rohsenow(1982)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음주율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연구는 표본 수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는 삶의 사건과 음주에 대해 자기관찰(self-monitoring) 방법론을 사용하였기에 그간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음주 간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Cole & Friedman, 1990; Pohorecky, 1991; Rohsenow, 1982) 둘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문제음주는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인 '정서 중심적 대처'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이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켜줄 것이라 믿으며 음주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음주를 통해 편안함과 긴장감소를 얻고자 하는 기대는 문제음주의 강력한 예측요인이다(Brown, 1985; O'Hare, 1990). 실제로 정서 중심 대처는 음주 수준의 증가와 알코올 관련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Evans & Dunn, 1995; Karwacki & Bradley, 1996).

위의 논의들은 긴장감소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Conger(1956)의 긴장감소가설에 따르면, 알코올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약리적 효과가 있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 행위가 촉진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Critchlow, 1986; 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87; Holahan et al., 2001; Leigh, 1989; Pierce et al., 1994; Russell et al., 1999; Sayette, 1999; Young, Oei, & Knight, 1990). 실제로 음주자들의 약 10%에서 25%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거나 이에 대처하고자 음주를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Farber, Khavari & Douglass, 1980; Mulford & Miller, 1963), 비 입원환경의 사회적 음주자와 알코올 중독자 모두 음주 후 긴장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다(Higgins & Frazell, 1981). 종합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알코올이 주는 긴장과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의 감소를 위해 정서 중심적 대처로서 문제음주를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장감소가설에 대해 알코올의 직접적인 긴장감소 기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해석으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한다(Smith & Goldman, 1995). 즉, 알코올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긴장을 이완시킬 것이라는 음주 결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Cooper et al., 1992a). 종합하면, 알코올의 직접적인 긴장감소기능 혹은 알코올의 긴장감소에 대한 심리적 기대 등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긴장감소를 기대하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중

하나로 음주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년기의 문제음주

문제음주의 행태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사회역할과 맥락 아래에서 형성된다. 청년기에는 취업을 통해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달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Erickson, 1982; 강상경, 2018), 이는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의 사교 동기, 동조 동기와 연결된다.

Cooper(1994)는 음주 동기의 원천(내적 차원, 외적 차원)과 음주를 통해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정적 강화, 부적 강화)에 따라 4요인 음주 동기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고양 동기(Enhancement Motive)란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하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 동기이다. 사교 동기(Social Motives)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등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 동기이다.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s)란 사회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없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부적 강화 동기이다. 대처 동기(Coping Motives)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부적 강화 동기이다. 4가지 음주 동기 중 청년기의 음주는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에서 점차 감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동기로 변화한다(이정진 외, 2014; 이숙현, 2017a). 4가지 음주 동기 중 대처 동기로 청년기의 문제음주를 설명할 수 있다.

대처 동기는 긴장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피하고자 음주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피, 자가투여 동기, 대처 음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대처 동기로 부정적 감정을 줄이거나 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불쾌감을 줄이고자 알코올을 다시 사용하였다(Stewart & Devine, 2000). 감정적 고통의 맥락 속에서 대처 동기로 음주를 하는 것은 알코올 사용 강도와 연결되었고(Beck et al., 1995), 음주빈도와 음주 문제들

을 예측하였다(Wood, Nagoshi & Dennis, 1992). Stewart 외(2001)는 대처 동기가 높은, 긴장 상태의 여성이 원치 않는 내부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음주 행위가 동기부여 되고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대처 동기는 심리적 고통과 음주(문제)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음주 동기와 더불어 음주 시작 나이에 따른 음주성향의 차이도 청년기의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로써 작용한다. 청년기 초반에는 입시해방으로 대학입학과 함께 문제음주가 나타나는데(이원재, 2004) 이로 인해 성적 저하와 결석 등의 학교 생활문제 및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허만세, 장승옥, 2010). 이처럼 음주 시작 나이가 25세 이전인 경우, 충동성과 감각추구 및 탐색 추구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에 음주 시작이 25세 이후인 청년의 경우, 위험회피성향, 불안성향, 스트레스 민감성이 두드러진다(Kim et al., 2007).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교 및 동조 동기에서 대처 동기로의 음주 동기 변화와 비슷한 맥락이다. 즉, 청년들은 점차 취업 준비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자 문제음주를 행하기 쉽다. 실증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박경민과 이민규(2005)는 장래 스트레스가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실업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기대되는 행위인 사회적 역할(Turner, 1990)을 끊임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적 역할은 개인이 사회적 실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해주며 사회적 구조의 근간을 구성한다. 인간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직업과 연결되는데(고민성, 김동주, 2014), 직업은 사회적 지위 중 하나이며, 사회적 역할을 수반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김백수, 2004). 직업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아실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그에 대한 충족감을 제공해준다(Steer & Porter, 1991; 송인주, 2010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사회화된 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Pearlin, 1983). 즉, 직업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부재한 실업 상태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업 상태는 개인의 삶에 커다란 위협으로 직결된다(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2009). 직업은 개인의 소득, 생활, 사회활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송이은, 김진영, 2012) 개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개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이은, 2010). 즉, 실업 상태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 정신건강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개인은 실업 상태에 의해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심리적 영향도 받게 된다(Creed & Macintyre, 2001). 즉, 실업 상태는 단순히 근로소득의 수단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만을 뜻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이론(Latent Deprivation Model)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인간은 일을

통해 소득으로 대표되는 명시적인 이득과 함께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을 얻는다. 여기서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에 형성되는 시간 구조화, 더 넓은 사회적 관계와 접촉, 공동의 목표 공유, 활동적 삶, 사회적 지위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 상태는 이러한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의 박탈, 즉,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명언, 노연희(1998)는 고용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위, 타인과의 접촉기회, 소비가능성 등에서의 결핍을 실업이 불러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때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정도에 따라 우울, 불안 등을 다르게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오수성(2001)은 실업을 경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실업자들이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 곤란해 하고 있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업 상태의 청년은 심리·사회적 어려움 중 대표적으로 자아존중감 저하를 겪을 수 있다(Ganley, 2002; Goldsmith, Veum & Darity, 1997;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Sheeran, Abrams & Orbell, 1995;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신이 성취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기에(Coopersmith, 1967) 실업 상태의 청년은 사회적 지위로서 실업자 상태를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쉽고, 이는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송이은, 김진영, 2012).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곤 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과 내·외집단 구성원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Turner et al., 1987). 여기서 비교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 혹은 업적을 그 자체가 지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Festinger, 1954). 즉,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직업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기 쉽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혹은 후술할 3절에서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기준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게으름, 실패자, 무능력함' 등으로 일컬어지는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도식(schema)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며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기 쉬운 취약성을 지니는데(Khang, 2006),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실업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2012~2013년 자료를 통해 2012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다음 해 미취업자와 취업 유지자를 비교한 정은석과 강상경(2015)은 직업 상황변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직자가 취업 유지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모습은 실업자의 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Ganley, 2002;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Tiggemann과 Winefield(1984)는 실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지루함과 외로움, 우울함을 느낀다고 표현하며 삶의 의욕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박혜경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실업자에게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비하를 발견하였으며, 실직자는 실직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다고 말하였다(김한우, 김명언, 1999).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개인은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고(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는 결과들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예를 들어, 송이은과 김진영(2012)은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이는 낮아진 자아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됨을 보고하였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Lazarus & Folkman, 1984:19)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

점하에서 실업 상태는 청년에게 부담을 주거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인의 인생 주기에 있어서 청년기는 성인 초기로서 직업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발달상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진다(Erickson, 1982; 강상경, 2018).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여겨진 특정 생활 사건이 좌절되었을 때 개인은 스트레스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Neugarten, 1979). 기존 연구들에서도 청년기의 실업 상태는 불안, 우울 등 취약한 정신건강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자 스트레스원으로 여겨진다(송인한, 이경원, 정집훈, 2019;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Aneshensel, 1992; Kessler, Turner & House, 1987; Kessler, Turner & House, 1989).

종합하면,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는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 중 정서중심적 대처의 하나로 문제음주를 행할 수 있다. 더불어 긴장감소가설에 따라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등의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음주를 한다. 즉, 청년의 문제음주는 실업 상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아 행해지는 대처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1. 자아존중감의 정의 및 특징

William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이며 이는 잠재력에 대비해 실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민석, 김동주, 2014).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는 개인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가치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된다(Rosenberg, 1979; Rosenberg et al., 1995). 태도는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한 요약적 평가를 의미하므로(Petty, Wegener & Fabrigar, 1997)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하게 된다(Brown, Dutton & Cook, 2001). 만약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것을 반영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전반전인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는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문제음주를 심

리적 부적응이나 삶의 문제가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한다(권태연, 2011; 김민혜 외, 2018; 이숙현, 2017a; Zhai et al., 2015). 문제음주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태도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실업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정은석, 강상경, 2015) 실업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

기존에는 자아존중감을 단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여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으로 나타내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하였다(유창민, 2018). 즉, 부정적 문항의 결과를 역산하여 전체 자아존중감 측정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담도록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 주로 사용하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개념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었다(Owens, 1994). 자아상은 긍정, 부정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김지혜, 임승락, 2002; 유창민, 2017b; Schwartz & Garamoni, 1986; Vallacher & Nowak, 2000).

자아존중감이 이원적이라는 것은 하위유형 간 상호관계가 반드시 부적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자동적이고 무조건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유창민, 2017b).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자아존중감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한다고 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이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유창민, 2017a).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

지 않는다(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와 같은 기존의 한계와 논의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을 둘로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이원적 구조가 단일 차원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김성용, 2014; 유창민, 2017a; 장혜림, 정익중, 2013; 정득, 이종석, 2015;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Ang et al., 2006; Boduszek et al., 2013; Kahng & Mowbray, 2005; Owens, 1994; Vallacher & Nowak,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upple 외(2013)는 4개국(유럽, 라틴, 아르메니아, 이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분석한 결과 이원적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창민(2018)은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1요인 구조보다 2요인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에 단일 차원으로 여겨지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self-worth; 자기 가치) 부정적 자아존중감(self-deprecation; 자기 비하)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구조로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향력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Owens, 1994).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예측요인(predictor)과 영향(consequence)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서 알 수 있다(강상경, 2006).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강상경, 2006; 이미리, 2005; Owens, 1993; Owens, 1994). 예컨대,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에서의 성적 등 자기발달(self-development)과 관련이 있지만(Owens, 199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안녕과 관련이 있다(최희철, 2011). 즉, 자아존중감은 그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예측요인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하나 이상의 면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요인이 아닌 두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기존의 단일 요인의 자아존중감에서는 간과되거나 파악할 수 없었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인적 선행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앞서 3절에서 스트레스원으로서 실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업 상태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에 자아존중감 등의 원인적 선행변인을 통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청년이 실업 상태를 스트레스로 여기는지 혹은 여기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선행하여, 대처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관계하는 매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음주라는 정서 중심적 대처는 실업 상태(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지적 평가는 원인적 선행변인이자, 개인이 의지하는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에 의거하여 이뤄진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이 다르기에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에 의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매개하는 인지 과정 및 매개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인지의 결과로,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강상경, 2018). 인간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해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인지적 재해석에 따라 행동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강상경, 2018). 부정적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더라도 그러한 환경적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감정반응과 행동 양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변화하는 자신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인 자신감도 약화되어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 성향이 나타난다(Ulrich, 2009). 즉, 자신의 긍정성을 생각하는(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자신의 부정성을 생각하는(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문제를 유발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Macinnes, 2006).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강욱모, 김지훈, 2017).

따라서 개인은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을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인지적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즉, 실업 상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상태를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실업과 자신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문제음주라는 행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문제음주 행위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음주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즉,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해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표상(실패, 무능력, 게으름 등)을 기본적인 이해의 틀로 사용한다. 즉, 실

업 상태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인지적 특성으로서 평가절하-차별-신념(Beliefs-in-devaluation-discrimination)이 매우 강하게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Link, 1987; Link et al., 1989; Link et al., 1997; Link et al., 2001).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반면에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Khang, 2006; Levine, Wyer & Schwarz, 1994).

실업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청년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대처하기 위해 정서 중심적 대처로서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이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의 경우, 같은 실업 상황에서도 대처자원으로 작용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혹은 평가)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대처에까지 영향을 미쳐 문제음주가 아닌 다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문제음주라는 정서적 대처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핀 연구는 드물다. 대신에 고용지위나 경제활동상태가 심리적 상태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신영희(1994)는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사이를 매개함을 밝히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 상태와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함을 밝힌 연구 결과들(송이은, 김진영, 2012; Kokko & Pulkkinen, 1998; Pearlin et al., 1981)이 있다. 또한, 실업자일 때 삶의 질(혹은 삶의 만족도)이 낮아지며 이를 자아

존중감이 매개한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다(강욱모, 김지훈, 2017; 고민석, 김동주, 2014; 김자영, 한창근, 2016).

앞서 살핀 실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종합하면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매개 변인인 것으로 추론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 5 절.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기타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영향력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한다.

대부분의 연구와 실제 알코올 섭취 현황에서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의 음주율보다 높다. 문제음주에 관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수, 성희자, 2010). 알코올 관련 문제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금이, 2006; 박동준, 2005; Dawson & Grant, 1993; Rogers et al., 2000). 이러한 차이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사회화과정에서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향적인 성향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음주로 표출하지만,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표출하기보다는 내재화한다(Horwitz & White, 1987).

연령은 음주 행위에 미치는 중요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Catalano et al., 1993; Jones-Webb, 1998; Midanik & Clark, 1994). 구체적으로 Rogers 외(2000)는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음주 행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 분석과 성인 남성 문제음주 변화를 분석한 송태민, 이주열, 김계수(2012)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18세에서 26세의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Needham(2007)은 연령이 높은 사람이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폭음빈도의 초기값이 높고, 폭음빈도의 변화수준 역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혼상태와 음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는다. Broman(1993)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폭음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지만, 신명식(2002)은 유배우자의 문제음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건강 행위나 태도,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된다(Lantz et al., 1998). 학교를 졸업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자라왔음을 반영하고, 예방이나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Winkleby et al., 199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이숙현, 2017a; Goldman & Lakdawalla, 2005). 따라서 교육수준은 문제음주에 대한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노력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상이한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식, 2002). 이용철, 임복희(2010)도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남성의 경우, 학력이 문제음주의 보호 요인이라고 밝혔다.

소득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여가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다양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강상경, 권태연, 2008). 소득은 부정적 상황과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음주 행위의 대처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긍정적 정신건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숙현, 2017b).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알코올 사용과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정숙, 2002; 이용표, 2001; Pierce et al., 1994; Rogers et al., 2000).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신명식, 2002).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폭음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한다는 연구와(Caetano, 1987) 가구소득이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Gunn, 2001).

한편, 종교는 주로 알코올 사용과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Ham & Hope, 2003). 종교적인 헌신은 폭음의 빈도와 부적 관계를 보였고(Durkin, Wolfe, & Clark, 1999) 종교가 중요하다고 믿는 학생일수록 과음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Wechsler et al., 1995). 종교적 소속이 없는 학생이 종교적 소속이 있는 학생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음주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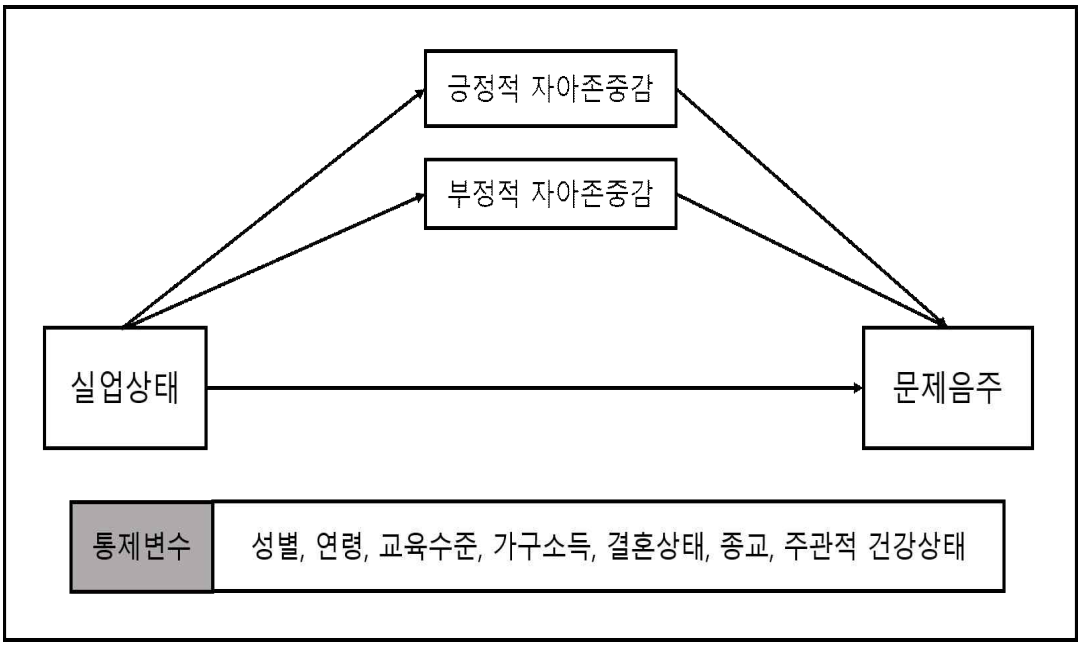
경향이 확인되었다(Patock-Peckham et al., 1998).

개인의 건강상태는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권태연, 2010).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지각 및 평가는 구체적인 신체적 질병의 유무와 관련성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Litva & Eylse, 1994). 개인은 건강에 대한 지각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그러한 태도는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건강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권태연, 2010).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음주량이 줄어들었다(Abu-Bader & Crewe, 2006; Chou, 2005; Green, Freeborn, & Polen, 2001). 마찬가지로 신명식(2002)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보다 문제음주자 비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연구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통해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5]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고용패널조사의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데이터 중 13차(2019) 자료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조사(YP2007[6])는 2007년 당시 만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이다. 표본 유지율은(장기부재자 포함) 2007년 원표본 대비 68.6%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과 관련된 임금, 직업, 회사 유형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장점

5)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25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의 기준이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저축계좌와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보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였다.

6)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대상의 YP2001 코호트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대상의 YP2007 코호트로 구분된다. YP2001 코호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적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패널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저연령대 청년층 통계를 보완하고 현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7년 YP2007 코호트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로 2019년도 청년패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것이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문제음주와 실업 여부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음주 여부나 정도(음주빈도 또는 음주량 등)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노동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한국복지패널 등이 있었으나 이들 중 문제음주와 실업 여부를 모두 포괄하고 청년 집단에 대한 충분한 사례 수를 제공하고 대표성이 가장 우수한 자료는 청년패널이었다.

예컨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음주 시작 연령, 평생 음주 여부, 음주빈도, 1회 음주량, 폭음빈도 등 다른 자료들에 비해 음주에 관한 조사 항목은 풍부하여 고위험 음주율 등은 측정할 수 있으나, 문제음주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진 않아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어려웠다. 또한, 실업 상태나 구직활동 여부 등을 측정한 항목이 따로 없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음주 여부와 음주빈도, 금주 시도, 금주 시작 시기(년, 월)만을 조사하고 있어, 예를 들어 월 2~3회 음주자와 주 1~2회 음주자의 음주량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어 문제음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웠다. 또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 음주에 대해 빈도만을 조사하고 있어 문제음주를 정의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음주 횟수, 음주 시 마시는 술잔 횟수,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조사하였고, 문제음주와 알코올 의존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인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한 장점이 있었으나, 25-39세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응답자 수가 1,127명뿐으로 청년패널보다 충분한 사례 수를 제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그림 3] 참조). 먼저, 청년패널 13차년도(2019)의 전체 응답자 9,738명 중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6,669명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주일간 한 일을 바탕으로 비경제활동인구 885명을 제외하여 독립변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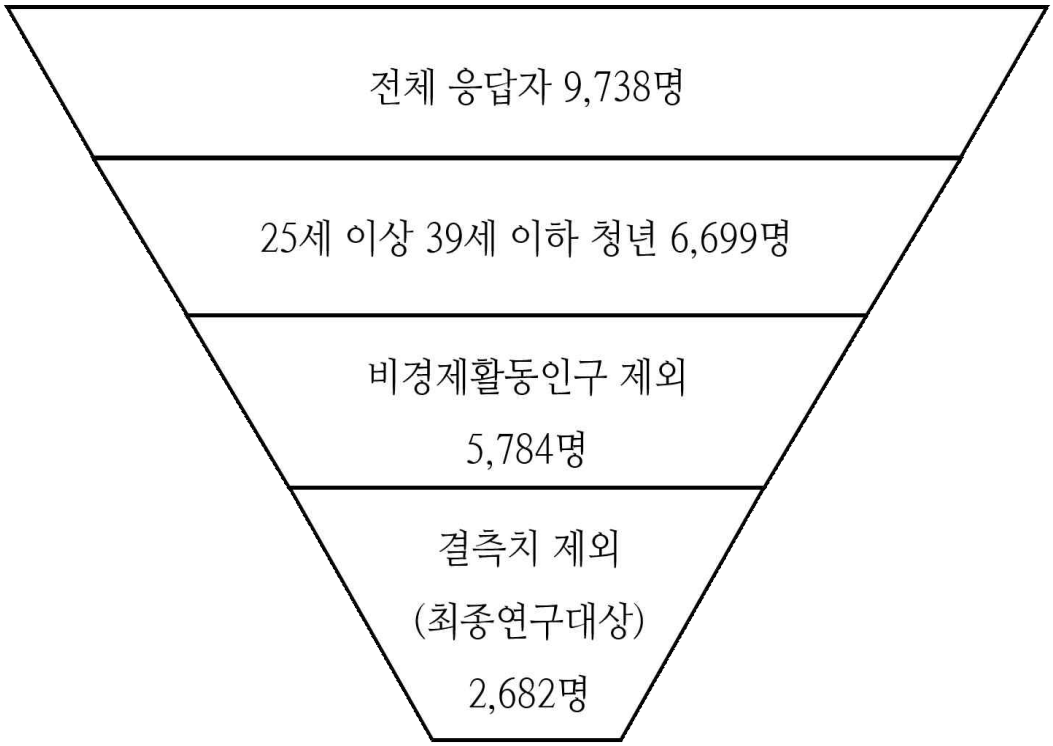
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나타내는 청년 5,784명만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문제음주의 결측치 2,506명을 제거하고 3,278명 중 매개변수인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결측치 3명과 가구소득의 결측치 593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682명을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년과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문제음주 행위 수준, 실업 여부,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다. 먼저, 25세 이상 39세 이하 집단(6,669명)과 그 외 연령대(19~24세, 40~41세) 집단(3,069명)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성별(χ^2=.09, p=.765), 부정적 자아존중감(t=-.23, p=.817), LN문제음주(t=-.06, p=.95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교육수준(χ^2=2784.30, p=.000), 실업 여부(χ^2=1724.89, p=.000), 긍정적 자아존중감(t=-3.11, p=.00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탈락집단은 포함집단보다 교육수준에서 고졸 미만과(73.5%, 26.5%) 고졸이 많았고(64.8%, 35.2%), 실업 여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았는데(63.6%, 36.4%) 이는 탈락된 연령대 집단 내에 19~24세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탈락 집단은 포함 집단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4.19점, 4.24점) 그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 두 집단은 그 특성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제외된 비경제활동인구 집단(885명)과 연구에 포함된 경제활동인구 집단(5,784명)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은 LN문제음주(t=-.66, p=.508)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χ^2=479.35, p=.000), 교육수준(χ^2=69.28, p=.000)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t=11.13, p=.000)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t=-2.07, p=.039), 긍정적 자아존중감(t=-2.36, p=.019)에서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은 경제활동인구 집단보다 여성(22.0%, 78.0%)과 남성(3.8%, 96.2%) 모두 적었고, 교육수준에서도 고졸 미만(30.8%, 69.2%), 고졸(18.0%, 82.0%), 전문대졸(16.2%, 83.8%), 4년제

대졸(10.2%, 89.8%), 석사 이상(15.3%, 84.7%) 모두 적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집단의 표본 수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보다 약 6배 넘게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은 경제활동인구 집단보다 연령이 더 높았고(33.30세, 31.66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4.19점, 4.25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1.89점, 1.96점) 더 낮았다.

마지막으로 결측치로 인해 제외된 집단(3,102명)과 최종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집단(2,682명)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성별(χ^2=270.76, p=.000), 실업 여부(χ^2=86.78, p=.000), 연령(t=5.95, p=.000), 부정적 자아존중감(t=-8.28, p=.000), 긍정적 자아존중감(t=5.79, p=.000), LN문제음주(t=-4.00, p=.000)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χ^2=12.96, p=.011)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결측치 집단은 최종 분석 집단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65.1%, 34.9%),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미만을 제외하고 고졸(53.5%, 46.5%), 전문대졸(52.7%, 47.3%), 4년제 대졸(53.3%, 46.7%), 석사 이상(62.2%, 37.8%)이 모두 더 많았다. 또한, 결측치 집단은 최종 분석 집단보다 연령이 더 적었고(31.36세, 32.01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더 낮았으며(4.20점, 4.30점),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고(2.05점, 1.85점), LN문제음주는 더 높았다(.16, .11).



[그림 3] 연구대상 선별과정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문제음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년의 문제음주 행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GE(Cut-down, Annoyed, Guilty-feeling, Eye-opening) (Ewing, 1984) 음주 의존도 척도가 번안된 것을 사용한다. CAGE 척도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도와 구성성이 높은 문제음주에 대한 선별도구로 알려져 있다(이숙현, 2017a). CAGE 음주 의존도 척도는 음주 인식 4개 문항(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 술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하는 느낌,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 숙취 제거를 위해 아침에 술을 마신 경험)으로 구성되어있다(<표 1> 참조). 각 문항에 대해 '1=예'로 응답한 경우 1로, '2=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재코딩하여 4개 문항의 합을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청년기의 문제음주 수준이 향후 성인기의 음주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문제음주 여부로 보게 되었을 때 생애주기상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절단점을 이용한 문제음주 여부(범주형 변수)가 아닌 문제음주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의 경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연로그(LN) 함수로 변환[7]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종속변수의 문항 내용

변수명	문항 내용
문제음주	①스스로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②음주에 대한 비난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③음주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④해장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7) 문제음주의 경우, 자연로그(log)로 변환하면 문제음주가 0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음주 값에 1을 합한 값을 자연로그(log)로 변환하였음.

2. 독립변수: 실업 여부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정의하였다. 위의 질문에 '일했음(1),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자(2), 일시휴직(4), 발령대기(12)'에 응답한 경우 취업을 한 청년이라 보아 '0'으로 코딩하였다. '구직활동(6), 취업준비(7), 쉬었음(11),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응답한 경우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보고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그 외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3), 가사 혹은 육아(5), 진학준비(8), 군입대 대기(9), 심신장애(10), 입시학원 통학(14), 결혼준비(16), 기타'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광의의 실업자 여부가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이와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매개변수: 이원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가치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이다(Rosenberg, 1979; Rosenberg et al., 1995). 제 2장 제 4절에서 전술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하나로 간주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적합한 하위요인들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SES(Self-Esteem Scale)를 하유진(2006)이 총 10개 문항으로 번안한 것을 기준으로 각 3문항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6점 리커트 척도로[8]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8)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

의미한다. 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777, .835였다.

<표 2> 매개변수의 문항 내용

변수명	문항 내용
긍정적 자아존중감	①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②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③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①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이 든다. ②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③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남자(1), 여자(2)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연령의 경우 출생연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구가 이루어졌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여 분석에서서 활용한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청년패널에서는 최종학력을 5개의 범주로(1=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석사학위 이상) 구분하였다. 청년패널에서는 최종학력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유형을 물어 재학 학교를 파악하고, 지난 재학 학교 변화 여부 변수를 토대로 이에 대한 변화 여부를 식별한 후, 전문대졸과 대졸을 구분하기 위해 대학교 유형 변수에서 2~3년제 대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식별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본 연구에서는 위의 1부터 5까지의 범주를 그대

로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18세 이상, 미혼모 포함)'의 경우 '배우자 없음'으로 0, '기혼, 유배우'의 경우 '배우자 있음'으로 1로 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실업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은 부재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경제적 도움 등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통제한다. 생계는 가구 단위로 꾸려지고 개인은 자신의 근로소득 외에도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구인회, 2019). 가구소득은 청년패널에서 각 조사연도별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유무를 먼저 묻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구체적인 금액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가구 전체소득으로 여겨서 사용한다. 가구소득은 대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것으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 13차의 경우, 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결측치가 대부분이라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구 근로소득만을 가구 전체소득으로 사용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에 필요한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OECD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즉, 가구 근로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고 정규분포를 검증하였다.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의 첨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해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연로그(LN) 함수로 변환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의 유무를 기준으로 원자료에서는 '종교 있다(1)' 또는 '종교 없다(2)'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있음을 '1', 종교 없음을 '0'으로 변환하여 더미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써, 가장 널리 쓰이는 건강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 간단하면서도 사망 예측력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Lima-Costa et al., 2012). 본 연구의 데이터인 청년패널에서는 "현재 _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매우 건강하다)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상의 변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변수 종류	변수명	측정방법	변수 형태
종속	문제음주	4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합을 자연로그(LN)함수로 변환함	연속
독립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범주
매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3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속
	부정적 자아존중감	3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속
통제	성별	0=여자, 1=남자	범주
	연령	2019-출생연도	연속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별거, 미혼), 1=배우자 있음(기혼, 유배우)	범주
	교육수준	1= 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4년제 대졸, 5=석사학위 이상	범주
	가구소득	LN(가구 근로소득/가구원 수 제곱근)	연속
	종교	0= 종교 없음, 1= 종교 있음	범주
	주관적 건강상태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매우 건강하다	연속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2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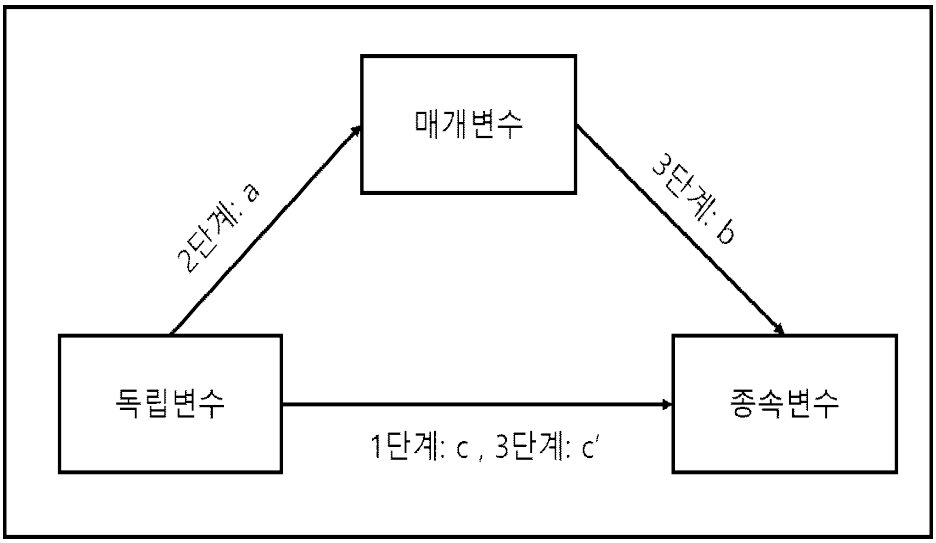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척도의 내적 일관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때,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구동모, 2013).

둘째, 연구대상인 청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왜도, 첨도 등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인 정규성 가정에 어긋나면 필요에 따라 자연로그 변환 등 변수에 적절한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취업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 간의 문제음주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분산팽창인차(VIF)를 구하였다. 변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박완규, 홍성표, 2009).

넷째,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실업 여부, 문제음주,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그림 4] 참조). 즉,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그림 4] 검증모형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에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매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즉, 3단계(매개변수까지 투입한 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가 1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독립변수의 영향력(회귀계수)이 감소하되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매개변수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 번의 다중회귀분석이 이루어지고, 산출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test를 실시했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한국 청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인 문제음주, 실업 여부,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분포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그러나 정규분포가 심하게 위배되어 왜도 및 첨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변수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정규분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n=2,68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실업 여부	취업자	2,439	90.9
	실업자	243	9.1
성별	남성	1,740	64.9
	여성	942	35.1
교육수준	고졸 미만	7	.3
	고등학교 졸업	452	16.9
	전문대학 졸업	613	22.9
	4년제 대졸	1,497	55.8
	석사학위 이상	113	4.2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1,759	65.6
	배우자 있음	923	34.4

종교	종교 없음	2,280	85.0
	종교 있음	402	15.0

먼저 <표 4>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의 경우, 전체 응답자 2,682명 중 취업자 집단에 속하는 청년은 2,439명(90.9%)이고 실업자 집단에 속하는 청년은 243명(9.1%)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1%만이 실업자 집단으로 나타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20년 12월 기준 청년 실업률(8.1%)과 유사한 수치였다(통계청, 2020). 즉, 현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반영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1,740명(64.9%), 여성은 942명(35.1%)으로 남성이 약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총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졸 미만 7명(0.3%), 고졸 452명(16.9%), 전문대졸 613명(22.9%), 4년제 대졸 1,497명(55.8%), 석사학위 이상 113명(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 절반 이상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임을 의미한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1,759명(65.6%)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923명, 34.4%)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이 2,280명(85.0%)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402명, 15.0%)보다 약 5배 정도 많아, 응답자 대부분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2,682)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	문제음주	0	4	.18	.56	3.83	16.80
	(LN)	0	1.61	.11	.30	2.83	7.43
통제	연령	25	39	32.01	4.23	.17	-1.32
	가구소득 (만원)	115.47	24,000	3,694.75	1,705.01	2.95	21.62
	(LN)	4.75	10.09	8.12	.44	-.97	6.79

	주관적 건강상태	1	5	3.69	.84	-.98	1.20
매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1.67	6	4.30	.66	-.20	.61
	부정적 자아존중감	1	6	1.85	.85	1.39	2.20

<표 5>에 제시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연령은 최소 25세에서 최대 39세로 평균값은 32.01, 표준편차는 4.23으로 나타났다. 가구총 근로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의 경우, 최소 115.47만원에서 최대 24,000만원으로, 평균값은 3,694.75만원, 표준편차는 1,705.0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최소 1점, 최대 5점, 평균 3.69점(표준편차 .84)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통제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기준치보다 낮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종속변수인 문제음주를 살펴보면, 문제음주는 예(1) 또는 아니오(0)로 2점 척도로 이뤄진 4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평균값은 .18, 표준편차는 .56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의 왜도는 3.83, 첨도는 16.80이었다. 왜도와 첨도 모두 수용 임계치를 초과해 정규성을 심하게 위배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1을 더하고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연로그 변환 후 문제음주의 왜도는 2.83, 첨도는 7.43으로 나타나, 원 변수보다 정규성 분포를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매개변수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6점 척도로 구성된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

9) 더불어 분석된 사례 수가 2,682개로 오차의 정규성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확보되며 사례수가 일반적으로 200개를 넘으면 오차의 정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최소 1점, 최대 6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4.30, 표준편차는 .66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왜도는 -.20 , 첨도는 .61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6점 척도로 구성된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최소 1점, 최대 6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1.85, 표준편차는 .85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왜도는 1.39, 첨도는 2.20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 왜도와 첨도가 수용 임계치보다 낮아 정규성 판단에는 무리가 없었다.

2. 실업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실업 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값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비연속변수로 측정된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에서 실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빈도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제음주의 경우 실업 여부별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다.

먼저 교차분석 결과, 남녀 모두 취업자 청년이 실업자 청년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업 여부와 결혼상태의 교차분석 결과,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 모두 실업자보다 취업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71.28, $p<.001$).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집단에서 취업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집단, 전문대학 졸업 집단, 석사학위 이상 집단, 고졸 미만 집단 순이었다. 실업자의 수도 4년제 대학 졸업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집단, 고등학교 졸업, 석사학위 이상 집단, 고졸 미만 집단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업 여부와 종교 유무의 교차분석 결과,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

가 있는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연속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를 살펴본다. 이들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검증을 통해 파악했다. 가구소득(t=10.04, p<.001), 연령(t=9.46, p<.001), 주관적 건강상태(t=4.92,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t=2.08, p<.05), 부정적 자아존중감(t=-4.78, p<.001), 문제음주 수준(t=-3.13,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8.15로, 실업자(7.86)보다 약간 더 많았고, 연령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32.25세로, 실업자(29.60세)보다 약간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3.72점으로, 실업자(3.44점)보다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약간 더 높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자(4.22점)보다 취업자(4.31점)가 약간 더 높았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자(2.10점)가 취업자(1.83점)보다 약간 더 높았고, 문제음주 수준도 취업자(.10)보다 실업자(.16)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실업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82)

(단위: 명(%))

변수		취업자	실업자	전체
전체		2,439(90.9)	243(9.1)	2,682(100.0)
성별	여성	849(90.1)	93(9.9)	942(100.0)
	남성	1,590(91.4)	150(8.6)	1,740(100.0)
	χ^2=1.16			
결혼 상태	배우자 없음	1,540(87.5)	219(12.5)	1,759(100.0)
	배우자 있음	899(97.4)	24(2.6)	923(100.0)
	χ^2=71.28***			
종교	종교 없음	2,078(91.1)	202(8.9)	2,280(100.0)
	종교 있음	361(89.8)	41(10.2)	402(100.0)
	χ^2=.7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6(85.7)	1(14.3)	7(100.0)
	고등학교 졸업		404(89.4)	48(10.6)	452(100.0)
	전문대학 졸업		566(92.3)	47(7.7)	613(100.0)
	4년제 대학 졸업		1,355(90.5)	142(9.5)	1,497(100.0)
	석사학위 이상		108(95.6)	5(4.4)	113(100.0)
	χ^2=6.29				
연령	평균		32.25	29.60	32.01
	표준편차		4.20	3.65	4.23
	t =9.46***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3.72	3.44	3.69
	표준편차		.82	.97	.84
	t =4.92***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균	4.31	4.22	4.30
		표준편차	.65	.67	.66
	t =2.08*				
	부정적	평균	1.83	2.10	1.85
		표준편차	.83	.98	.85
	t =-4.78***				
LN (가구소득) (만원)	평균		8.15	7.86	8.12
	표준편차		.40	.71	.44
	t =10.04***				
LN (문제음주)	평균		.10	.16	.11
	표준편차		.29	.37	.30
	t =-3.13**				

* p< .05 ** p< .01 *** p< .001

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보는 기준은 절댓값 0.8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박완규, 홍성표, 2009).

먼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제음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r=.06, p<.01)과 부정적 자아존중감(r=.18, p<.01)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와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자아존중감 역시 문제음주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r=.0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r=-.10, p<.01)와 문제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모두 절댓값 0.8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통해 변수들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2,682)

구분	연령	LN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LN (문제음주)
연령	1					
LN(가구소득)	-.06**	1				
주관적 건강상태	.18**	-.01	1			
긍정적 자아존중감	.04*	.17**	.13**	1		
부정적 자아존중감	-.05*	-.14**	-.21**	-.26**	1	
LN(문제음주)	.04*	.02	-.10**	.06**	.18**	1

* p<.05 ** p<.01 *** p<.001

제 3 절.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여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 자연로그 변화 처리를 하여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중공선성과 관련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5장 제2절에서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가 절댓값 0.8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또한 모든 변수에서 1에 근접하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한다.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청년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 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모형 1]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1단계)

$$\hat{Y}=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X_7 + \beta_8 D_8$$

Y : LN(문제음주)

D_1 : 성별(1=남, 0=여)

X_2 : 연령

X_3 : 교육수준

X_4 : LN(가구소득)

D_5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7 : 주관적 건강상태

D_8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표 8>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n=2,682)

변수		모형 1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03	.012	.005	.273
	연령	.004	.002	.051	2.203*
	교육수준	-.009	.007	-.025	-1.285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026	.014	.042	1.855
	LN(가구소득)	.027	.014	.039	1.965
	종교 (1=종교 있음)	.079	.016	.095	4.937***
	주관적 건강상태	-.037	.007	-.104	-5.301***
독립변수	실업 여부	.075	.021	.072	3.616***

	(1=실업)		
(상수항)	-.086	.123	-.700
F	10.516^{***}		
R^2	.031		
수정된 R^2	.028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모형 1]의 모형 적합도는 F=10.516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028로 [모형 1]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문제음주 전체 변량의 2.8%가 설명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실업여부(B(S.E)=.075(.021), p<.001)가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업자 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상태보다 실업 상태일 때 (X가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08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통제변수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B(S.E)=.004(.002), p<.05), 종교(B(S.E)=.079(.016), p<.001), 주관적 건강상태(B(S.E)=-.037(.007), p<.001)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과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은 문제음주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년의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연구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는 이미 [연구가설 1]을 검증하며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2단계)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3단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각각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모형 2]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hat{Y}=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X_7 + \beta_8 D_8 + B_9 X_9$$

Y : 긍정적 자아존중감

D_1 : 성별(1=남, 0=여)

X_2 : 연령

X_3 : 교육수준

X_4 : LN(가구소득)

D_5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7 : 주관적 건강상태

D_8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X_9 :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형 3]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hat{Y}=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X_7 + \beta_8 D_8 + B_9 X_9$$

Y : 부정적 자아존중감

D_1 : 성별(1=남, 0=여)

X_2 : 연령

X_3 : 교육수준

X_4 : LN(가구소득)

D_5 : 결혼상태	X_7 : 주관적 건강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8 : 실업 여부
D_6 : 종교	(0=취업자, 1=실업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9 : 긍정적 자아존중감

다음으로는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실업 여부)와 매개변수(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 이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통합적 분석모형에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수립된 통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4]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

$$\hat{Y}=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X_7 + \beta_8 D_8 + \beta_9 X_9 + \beta_{10} X_{10}$$

Y : LN(문제음주)

D_1 : 성별(1=남, 0=여)	X_7 : 주관적 건강상태
X_2 : 연령	D_8 : 실업 여부
X_3 : 교육수준	(0=취업자, 1=실업자)
X_4 : LN(가구소득)	X_9 : 긍정적 자아존중감
D_5 : 결혼상태	X_{10} : 부정적 자아존중감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한 2, 3단계 결과를 <표 9>, <표 10>,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9>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n=2,682)

변수		모형 2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24	.026	.017	.925
	연령	-.003	.003	-.021	-.941
	교육수준	.038	.015	.048	2.563*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119	.030	.086	3.944***
	LN(가구소득)	.203	.029	.137	7.067***
	종교 (1=종교 있음)	.097	.034	.053	2.855**
	주관적 건강상태	.067	.015	.086	4.441***
	부정적 자아존중감	-.163	.015	-.212	-11.113***
독립변수	실업 여부 (1=실업)	.053	.044	.023	1.217
(상수항)		2.608	.268		9.737***
F		34.865***			
R^2		.105			
수정된 R^2		.102			

* p<.05 ** p<.01 *** p<.001

2단계 검증을 위해 <표 9>부터 살펴보면,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는 F=34.865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02로 [모형 2]에 포함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또는 현재 모형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전체변량의 10.2%를 설명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B(S.E)=.053(.044))는 긍

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1]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S.E)=.038(.015), p<.05), 결혼상태(B(S.E)=.119(.030), p<.001), 가구소득(B(S.E)=.203(.029), p<.001), 종교(B(S.E)=.097(.034), p<.01), 주관적 건강상태(B(S.E)=.067(.015), p<.001), 부정적 자아존중감(B(S.E)=-.163(.015), p<.001)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가구소득일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좋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 연령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n=2,682)

변수		모형 3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55	.033	-.031	-1.652
	연령	.010	.004	.051	2.301*
	교육수준	-.014	.019	-.014	-.754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154	.039	-.086	-3.961***
	LN(가구소득)	-.182	.037	-.094	-4.901***
	종교 (1=종교 있음)	-.105	.044	-.044	-2.396*
	주관적 건강상태	-.182	.019	-.179	-9.510***
	긍정적 자아존중감	-.270	.024	-.208	-11.113***
독립변수	실업 여부 (1=실업)	.128	.056	.043	2.281*

(상수항)	4.980	.337	14.783***
F	40.971***		
R^2	.121		
수정된 R^2	.118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표 10>을 살펴보면,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3]의 모형 적합도는 F=40.971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18로 [모형 3]에 포함된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또는 현재 모형에 의해), 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변량의 11.8%가 설명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B(S.E)=.128(.056), p<.05)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보다 실업자일 때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또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B(S.E)=.010(.004), p<.05), 결혼상태(B(S.E)=-.154(.039), p<.001), 가구소득(B(S.E)=-.182(.037), p<.001), 종교(B(S.E)=-.105(.044), p<.05), 주관적 건강상태(B(S.E)=-.182(.019),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B(S.E)=-.270(.024), p<.001)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일 때,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나쁠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과 교육수준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에게 상

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11>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n=2,682)

변수		모형 1				모형 4			
		실업 상태→LN(문제음주)				실업 상태, 이원적 자아존중감→LN(문제음주)			
		B	S.E	β	t	B	S.E	β	t
통제	성별 (1=남)	.003	.012	.005	.273	.006	.012	.010	.520
	연령	.004	.002	.051	2.203*	.003	.002	.043	1.887
	교육수준	-.009	.007	-.025	-1.285	-.009	.007	-.026	-1.335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026	.014	.042	1.855	.033	.014	.053	2.347*
	LN(가구소득)	.027	.014	.039	1.965	.032	.013	.048	2.412*
	종교 (1=종교 있음)	.079	.016	.095	4.937***	.083	.016	.100	5.275***
	주관적 건강상태	-.037	.007	-.104	-5.301***	-.027	.007	-.076	-3.855***
독립	실업 여부 (1=실업)	.075	.021	.072	3.616***	.065	.020	.062	3.193**
매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047	.009	.104	5.283***
	부정적 자아존중감					.071	.007	.201	10.109***
상수항		-.086	.123		-.700	-.491	.127		-3.881***
F		10.516***				20.024***			
R^2		.031				.070			
수정된 R^2		.028				.066			
R^2 변화량						.039			

* p<.05 ** p<.01 *** p<.001

3단계 검증을 위해 [모형 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는 F=20.024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066으로 [모형 4]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문제음주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한다. [모형 4]의 R^2값은 .070으로 [모형 1]에서 독립변수들만 투입했을 때의 R^2값인 .031에 비해 .03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R^2값의 증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투입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와 다른 통제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각각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B(S.E)=.047(.009), p<.001)과 부정적 자아존중감(B(S.E)=.071(.007), p<.001) 모두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48만큼 증가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74만큼 증가함을 뜻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 역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S.E)=.065(.020), p<.01). 취업 상태일 때보다 실업 상태일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67만큼 증가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결혼상태(B(S.E)=.033(.014), p<.05), 가구소득(B(S.E)=.032(.013), p<.05), 종교(B(S.E)=.083(.016), p<.001), 주관적 건강상태(B(S.E)=-.027(.007), p<.001)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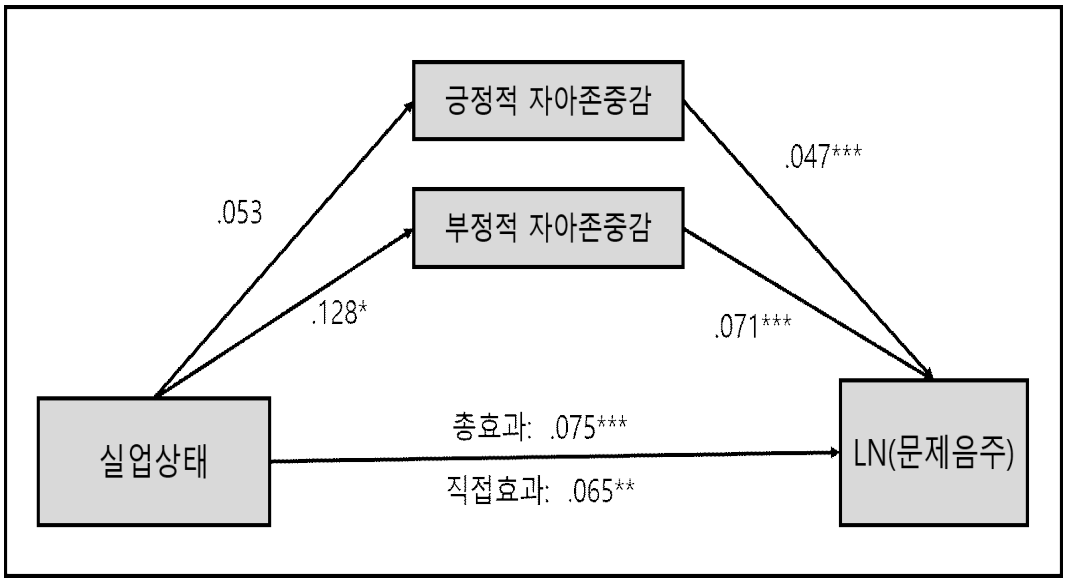
다음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매개효과 검

증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추가됨으로써 감소해야 한다. 앞서 2단계 검증을 할 때, 실업 여부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9>, <표 10> 참고).

[모형 1]에서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B=.075(S.E=.021, p<.001)이었으나 분석의 3단계인 [모형 4]에서 실업 여부,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실업 여부의 영향력은 B=.065(S.E=.020, p<.01)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업 여부와 문제음주 매개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형태를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모형 4]에서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은 비표준화 회귀계수값 .065로 이는 [그림 5]의 직접 효과에 해당한다. 이를 [모형 1]의 총 효과인 회귀계수값 .075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델의 경우 모델 1(총 효과)에 비해 모델 4(직접효과) 계수 값이 절댓값 .01만큼 차이가 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10]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박용권, 2012).



[그림 5] 실업 여부-문제음주 매개관계 결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했다. 매개모형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Sobel-test 검증값은 2.229로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표 12> 매개효과 모형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변수			독립→매개		매개→종속		Sobel -test
독립	매개	종속	B	S.E	B	S.E	Test Statistics
실업 여부	부정적 자아존중감	LN (문제음주)	.128	.056	.071	.007	2.229*

* p<.05 ** p<.01 *** p<.001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성인 초기 발달과업인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즉, 실업 상태일 때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직업을 갖고 소속감의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음주를 하기 쉽다.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이후 중장년, 노년기에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 등의 사용장애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실업이 미치는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인지적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대처로서의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태도인 청년들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개입하는 구체적 실천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큰 틀로 하고 긴장감소가설과 인지 이론으로 이를 보충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셋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청년패널 13차년도(2019년) 데이터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및 Sobel-test를 통한 매개효과 확인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2,682명이었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년의 실업 여부는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자인 청년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수준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업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실업과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실업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자인 청년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2]와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청년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로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지지**

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1]의 분석 결과,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업 상태보다 실업 상태일 때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작동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로써 문제음주 수준을 높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 상태가 취약한 정신건강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자 스트레스라고 설명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송인한 외, 2019; 이가영 외, 2015; 장재윤 외, 2006; Aneshensel, 1992; Kessler, Turner & House, 1987; Kessler, Turner & House, 1989). 또한, 긴장감소가설을 적용해보면, 실업 상태의 청년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문제음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감소할 것이라 믿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긴장감소가설에 따라 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박경민, 이민규, 2005; 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Camatta & Nagoshi, 1995; Carney et al., 2000; Critchlow, 1986; O′ Hare & Sherrer, 2000)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문제음주에 대해 개입할 때 청년의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2.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실업이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년의 실업 상태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1)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년의 실업 상태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2]의 분석 결과,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년이 취업 상태일 때보다 실업 상태일 때,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실업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설명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박혜경, 김병숙, 최정은, 2018; 정은석, 강상경, 2015; Ganley, 2002;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또한,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남학생들에게서 스트레스 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이미리, 2005)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Blankertz 외(1999; Ang et al., 2006 재인용)는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것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이론을 적용해보면, 실업이 개인에게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적 비교이론(Turner et al., 1987)에 따라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

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식을 형성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완화하는 심리·정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Tre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를 뒷받침한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사회적 안녕과 관련이 있기에(최희철, 2011; Owens, 199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 일부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실업 상태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더불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문제음주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 적합도와 설명력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상태와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송이은, 김진영, 2012; Kokko & Pulkkinen, 1998; Pearlin et al., 1981)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개인의 원인적 선행변인(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스트레스원(실업)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지적 평가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한 대처(문제음주)가 이뤄진다는 스트레스-대처 모델(Lazarus & Folkman, 1984)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와 달리,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

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높은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모든 상황, 모든 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연구결과들과 연결된다(Mruk, 2006).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 상태이더라도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정익중, 2006)가 있으며,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Baumeister et al., 2003). 해당 연구들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비행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후속 연구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발휘하는 대상, 환경, 변인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청년의 실업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Cooper(1994)의 음주동기에 따르면, 청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대처로서 음주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기도 한다. 고양된 기분, 긍정적 정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깊다(강상경, 2006). 그러므로 고양된 기분으로 인해 증가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 행위 수준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혹은 과도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인지적 과정과 현실적인 판단을 저해시키기에(강상경, 2006; Keltner, Kring, 1998; Wood, 2000) 높아진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가 자신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지적 판단을 저해시켜 문제음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유추

해볼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친 분석 결과는 긍정 정서 확장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며, 다양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킨다(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Fredrickson, 2001; Isen, 2002)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모형 2], [모형 3], [모형 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만이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독립적이고(유창민, 2017a;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각각의 예측요인과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기존 연구들(강상경, 2006; Owens, 1993; Owens, 1994)을 지지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발달 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이종석, 정 득,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 Owens, 1994)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실업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저해하기보다는 자기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하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에 특히 더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 & Folkman(1984)이 주장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이 검증된 것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만이 나타난 것을 통해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라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방식의 인지적 평가가 이뤄져 문제음주라는 대처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가설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둘째, 실업으로 인한 결과 중 문제음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원적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소득원을 넘어서 자아개념 및 정체성과 같은 심리 내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Atchely, 1976; Hooker, 1991)이라는 논의와 연결된다. 특히, 문제음주라는 구체적인 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 담론에서 나아가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실업 상태 청년에게 소득보장과 고용중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긍

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적절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업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의 관계, 실업과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였다. 특히, 실업 상태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거쳐 문제음주의 증가를 겪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이 스트레스 상황 속 실업 청년을 문제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입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YP 2007) 13차 자료(2019)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서 표본을 추출한 전국대표성을 지닌 패널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도를 비교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실업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특성, 음주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다른 국외연구결과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패널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수행되는 후속 연구와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 정책적·실천적 함의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음주에 대한 조기개입과 실업 상태 청년을 중심으로 초점화된 개입,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실업 상태 청년에 대한 문제음주 예방사업(안)을 마련해야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절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성인 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을 18.6%, 6.5%에서 17.8%, 7.3%로 낮출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1) 이에 대한 실행과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권태연, 2020). 또한, 16개 시도의 중독관리센터를 두어 알코올 문제를 위한 조기개입·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센터의 수는 전국 50개소로 정체되어 있어(권태연, 2020) 서비스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5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는 사람 중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11년 8.6%에서 16년 12.1%로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7) 그 비율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기에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기된다. 더불어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해 현재 정기 건강검진에서 음주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기개입 등의 상담이나 중독 관련 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정슬기, 이민욱, 2018).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성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 문제음주, 특히, 실업 상태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대상자별 맞춤형 개입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의 경우, 성인 초기의 인구집단에 대해 대학생과 직장인으로만 교육 대상을 나누고 있어 실업 상태 청년의 경우 이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학교와 직장에 소속되지 않는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음주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실업 상태 청년이 문제음주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음주의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고려가 제기된다. 특히,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보다는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우선으로 개입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비약물 치료 중 심리·사회적 중재와 관련된다. 심리·사회적 중재에는 인지행동요법, 동기 강화 프로그램, 12단계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AA) 모임, 음악요법, 미술요법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이 있다(연영란, 이경순, 2012). 이는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영란, 이경순, 2012). 또한, 음주량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유진, 박수현, 2011). 문제음주자의 심리사회기능향상은 자신의 잠재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김상아, 남정보, 박웅섭, 2005).

특히, 자아 성장 및 자기주장과 관련된 프로그램(권영숙, 2000; 임경희, 1999; 전영민, 2002)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자기평가와 자기이해 등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확립하고 자아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배성우, 이경희, 2010). 박후남과 유숙자(2005), 김군자(2002), 황동섭(2003)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업 상태 청년의 문제음주 개입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고려하고 이를 낮추는 프로그램 및 심리·사회적 중재가 더욱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태에 개입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구직자들은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에(양쌍봉, 박재황, 2017) 구직 측면에서도 실업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구직자의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자 대상의 심리상담서비스인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a). 위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전수하고 개인별 주 호소

문제를 확인한다. 이후 후속 심층 상담과 추가 스트레스 측정이 이뤄지고 필요 시 연계 상담을 진행한다(고용노동부, 2021a).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심리적 안정 및 구직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을 증진시켜 빠른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김명언 외, 2003; 양쌍봉, 박재황, 2017; 이상록, 2001; 임성견 외, 2011; Vuori & Silvonen, 2005).

그러나 지역별 고용센터마다 수요에 차이가 있어 기본 상담회기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과 더 많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 상담회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지역 등 어느 고용센터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예산의 경우 조기에 소진되고, 사업위탁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간에는 서비스가 중간에 단절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 청년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1년 단위의 민간 공모·위탁 운영에서 '1년+1년' 또는 '2년+1년' 방식의 2~3년 단위로의 운영방식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업 상태의 청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력과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에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청년쉼표!' 사업을 통해 2017년 미취업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일대일 상담 등을 3개월에 거쳐 제공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의 우울 및 불안, 취업 소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해소와 자아존중감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활동수당이라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에 대해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전주

시, 2018;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재인용). 즉, 실업 상태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실업 상태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사업과 상담 프로그램들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특히,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2021b)에서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둔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긍정적인 자아' 프로그램만이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존감 검사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실업 상태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확대가 요구되고 중규모 그룹(30명 내외)의 1.5시간 강의식 운영보다는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탐색하고 진로설계를 돕고 있는데 총 3시간의 1회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보다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단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실업 상태 청년들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겪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 자료인 청년패널 13차(2019)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시행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실업 상태로 인해 문제음주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문제음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발생하는지,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실업 상태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에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2차년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 간 변화성을 잠재성장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교화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변수들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에 대한 측정이 다소 자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 데이터는 응답자 유형을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유형, 지난 1주간 한 일을 바탕으로 실업자와 취업자, 학생을 구분하고, 실업자를 다시 (지난 1주/1달 내) 구직활동 여부와 근로 가능 여부를 바탕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여부를 지난 한 주간 한 일을 바탕으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는 구직활동은 하지 않으나,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내부에 포함된 광의의 실업자를 포섭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때 지난 한 주간 한 일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응답

한 청년을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로 간주하였지만,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쉬고 있는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실업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즉, 자료상의 한계로 실업이라는 직접적인 상태를 완벽히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실업 기간이나 자발적 퇴사 등 실업자집단 내부의 상이함은 자료상의 한계로 측정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실업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음주와 이원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집단의 특성상 이질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취업자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의 상태를 3가지 집단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 상태 내에서도 고용의 형태나 직종 등에 따라 문제음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송이은, 김진영(2012)과 같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세분화해서 고용지위와 문제음주의 관계,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등을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등의 다른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간의 영향력이나 경로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문제음주 척도로 사용한 CAGE는 낮은 수준의 문제음주 선별에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송진영, 2014; 정슬기, 이수비, 2015) 보다 정교한 문제음주 측정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권태연(2010)과 같이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을 함께 고려한 분석으로 문제음주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해 측정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그 하위유형에 따라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외에도 청년의 실업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성인 초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하기에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나 가족관계 만족도 등의 가족 내 자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후속 연구에서 포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연구대상 선별과정에서 문제음주 등의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가 많아 이를 제외함으로써 표본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는 일반화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측치로 인해 최종 연구대상에 제외된 집단(3,102명)과 최종 연구대상(2,682명)은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종속변수인 문제음주, 통제변수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측치가 무작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고 이러한 표본의 편중에 대해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결측 사례를 구조적으로 제외하여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MAR(Missing at Random) 가정하에 ML(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구조방정식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떠한 적응결과를 나타내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의 적응결과 또한 모형에 추가하여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상경. (2006).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이원적 자존감과 관련된 요소들에 관한 연구: 사회사업적 함의. **사회복지연구, 29**, 209-241.

_____.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

_____,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0**, 332-355.

강욱모, 김지훈. (2017).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지위변화, 정신건강 및 삶의 질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가족복지학, 22**(3), 379-400.

강현식. (2006). 알코올중독의 재발과 관련있는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민석, 김동주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2). 137-164.

고용노동부. (2021a). 2021년도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제안요청서. 세종: 고용노동부.

_____. (2021b).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Retrieved 2021.05.16. from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2.do

구동모. (2013). **PLS 및 PROCESS를 활용한 기초, 조절,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파주: 학현사.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2015).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

권영숙. (2000). 주장훈련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태연. (2011). 심리사회행동요인을 고려한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187-215.

_____. (2020). 성인의 문제음주 발달궤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51**(4), 173-208.

권현수, 성희자. (2010). 성인 문제음주가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1), 147-167.

김경민. (2015). 심리적 구직준비특성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김종임, 김종성, 전현숙. (2009). 청년기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 결과기대, 금주 자신감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1), 73-82.

김군자. (2002). 알코올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의 검증: 분석적 음악치료와 게슈탈트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금이. (2006). 지역주민의 음주 및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 39-56.

김명언,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115-137.

_____,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2003). 성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181-204.

김민혜, · 조병희, 손슬기, 양준용, 손애리. (2018). 문제 음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성별 차이.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9**(1), 17-32.

김백수 (2004). 노동참여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아, 남정보, 박웅섭. (2005).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간의 상관성에 대한 메타분석. **신경정신의학, 44**(1), 75-81.

김성용. (2014). 정신장애인의 스티그마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91-120.

김순오 (2006). 성인남성의 음주동기, 자기효능감, 음주문제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3), 270-280.

김승섭. (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울: 동아시아.

김영훤. (2016). 공공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취업희망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석. (1999). 국내외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67-88.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Data Mining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75-95.

김자영, 한창근(2016).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훈, 강욱모. (2016). 베이비부머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Gender 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1), 93-113.

김지혜, 임승락. (2002). SOM(States of Mind) 모형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사고의 인지적 균형 1: 일반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25-146.

김한우, 김명언. (1999). 실직자의 심리적 경험.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9**(1), 92-94.

남석인, 이희정, 김성준, 김보경 (2016). 노인의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2). 121-150.

남진열.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특성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12)**, 27-47.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박동준. (2005). 지역사회 음주문화실태 결과분석-사례연구, 한국통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7-112.

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27**, 79-120.

박완규, 홍성표. (2009). **Gujarati의 계량경제학**. (제5판). 파주: 지필미디어.

박정숙. (2002). 도시 저소득층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혜경, 김병숙, 최정은. (2018). 실업자의 실업기간별 심리적 변화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7), 423-442.

박후남, 유숙자. (2005). 명상수련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환자의 자기개념, 금주자기효능 및 금주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4**(3), 304-312.

배성우, 이경희. (2010).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단주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35-63.

보건복지부. (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_____, 보건사회연구원. (2019). OECD Health Statistics 2019. Retrieved 2021.02.21. from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_____,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_____,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1).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예방. 세종: 보건복지부.

류수일. (2002). **알코올백과**.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송이은. (2010). 고용지위와 우울간의 차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2010 한국사회학포럼 자료집, 931-949.

_____, 김진영 (201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228-259.

송인주. (2010). 남성 노인의 노동 생애경로와 일의 의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인한, 이경원, 정집훈. (2019). 청년층 실업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음주의 조절효과: 성별 차이 분석. **대한보건연구, 45**(1), 59-70.

송진영. (2014).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4). 523-553.

송태민, 이주열, 김계수. (2012). 성인남성의 문제음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3**(1), 59-7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식약처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신명식. (2002). 한국성인의 음주문제 행태 관련 요인분석.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양쌍봉, 박재황. (2017).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분노, 불안, 우울 및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현실치료연구. 6**(1), 35-50.

연영란, 이경순. (2012).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용한 심리사회적 중재효과의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911-926.

오수성. (2001),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 존중감,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81-496.

유창민. (2017a).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9**, 25-58.

_____. (2017b). 청소년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5-31.

_____. (2018).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10년간 변화과정. **보건사회연구. 38**(3). 7-44.

윤명숙, 조혜정 (2008). 지역사회노인의 음주행위, 문제음주 실태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254-287.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6**(2), 197-209.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 12**(1), 165-179.

이상록. (2001). 실직자 구직상담의 효과분석: 공공취업알선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7**(1), 127-151.

이수인, (2007). 한부모의 과거 부부관계의 질, 자녀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41**(4), 128-163.

이숙현. (2017a). 청년과 중장년의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39-562.

_____, 한창근. (2017b). 중고령자의 자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참여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5-154.

이용철, 임복희. (2010). 성인 남녀의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음주정도에 따른 건강행위 비교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107-123.

이용표. (2001). 알코올중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정신건강 특성, 주관적 삶의 질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비교연구: 자활사업의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2), 5-12.

_____, 최희수, 박정임. (2000). 지역사회 중심의 알코올문제 개입을 위한 공중 보건적 접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 90-106.

이유리, 권정혜. (1997). 비행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1). 717-730.

이원재. (2004). 대학생의 문제 음주와 관련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15**(1), 223-250.

이정진, 문은수, 박제민, 이병대, 이영민, 정희정, 최윤미 & 정영인. (201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음주행동 관련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20**(1), 54-62.

이중정, 이충원. (2002). 대구시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건강관련 위험행동과 관련요인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3), 51-72.

이창식, 장하영. (201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력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47-53.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사회복지연구, 44**(2), 111-138.

임경희. (1999). 현실요법적 집단치료가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감과 음주에 관한 신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성견, 우종민, 채정호, 박주언, 최수찬. (2011). 전국 고용센터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과 검증. **스트레스 연구, 19**(4), 315-321.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 (1996).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가정의학회지, 17**(1), 42-53.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전영민. (2002).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자기사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12.

전해숙. (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0**(1), 55-77.

정 득, 이종석. (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정슬기. (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남자대학생과의 비교.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7**, 176-198.

_____. (2018). 불평등과 알코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독포럼 6주년 기념포럼 보도자료. 5-6.

_____, 이민욱. (2018). 사회경제적 박탈과 문제음주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3). 5-33

_____, 이수비. (2015). 빈곤과 소득불평등 인식에 따른 문제음주 발달궤적 변화.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5). 43-51.

정은석, 강상경. (2015).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84-109.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조현섭. (2004). 문제음주 선별검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유진, 박수현. (2011).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약물적 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학작업치료학회지, 19**(4), 51-66.

차재선, 임성문. (2016).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231-258.

최병훈. (2008). 실업대책의 고용지원서비스 정책분석 및 핵심고객집단 선정기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최희철. (2011).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적 관계:인지적 취약성 모델, 상처모델, 상호순환적 효과 모델의 검증. **상담학연구, 12**(6), 2251-2271.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유진. (2006).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20대, 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고용정보원. (2020). YP 2007 유저가이드(1~13차 조사 자료).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건강형평성 측정방법론**. 파주: 한울.

한금선, 양승희, 전겸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허만세, 장승옥. (2010). 청년기 초반 성인의 알코올문제의 변화 추이: 성차와 우울이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327-350.

홍대균, 강동묵, 김정원. (2009). 구조적 실업이 건강관련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21**(4), 346-353.

황동섭. (2003). 알코올중독환자의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인지행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u-Bader, H. S., & Crewe, E. S. (2006).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who were former welfare recipients: A path diagram, *Best Practices in Mental Health, 2*(2), 1-22.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1), 15-38.

_____, & Huba, G. J. (1983). Depression, alcohol use, and smoking over one year: a four-wave longitudinal caus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2), 134.

Ang, R. P., Neubronner, M., Oh, S. A., & Leong, V. (2006). Dimensionality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mong normal-technical stream students in Singapore. *Current Psychology, 25*(2), 120-131.

Atchley, R. C. (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New York :

Halsted Press.

Baer, J. S. (2002). Student factors: understanding individual variation in college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14*, 40-53.

_____, Kivlahan, D. R., Blume, A. W., McKnight, P., & Marlatt, G. A. (2001). Brief intervention for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4-year follow-up and natural histo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310 - 131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umeister,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_____,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Beck, K. H., Thombs, D. L., Mahoney, C. A., & Fingar, K. M. (1995). Social context and sensation seeking: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 drinking motiv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9), 1101 - 1115.

Boduszek, D., Hyland, P., Dhingra, K., & Mallett, J. (2013). The factor structure and composite reliabil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mong ex-prison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8), 877-881.

Broman, C. L. (1993).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related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4), 335-350.

Brown, J. D., Dutton, K. A., & Cook, K. E. (2001). From the top down: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Cognition and Emotion, 15*(5), 615-631.

Brown, S. A. (1985). Expectancies versu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1), 123 - 130.

Caetano, R. (1987). Alcohol Use and Depression Among U. S. Hispanic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2*, 1245-1251.

Camatta, C. D., & Nagoshi, C. T. (1995). Stress,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1), 142-146.

Carney, M. A., Armeli, S., Tennen, H., Affleck, G., & O'Neil, T. P. (2000). Positive and negative daily events, perceived stress, and alcohol use: A diary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88-798.

Catalano, R., Dooley, D., Wilson, G., & Hough, R. (1993). Job loss and alcohol use: A test using data from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Project.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34*(3), 215-225.

Chou, K. L. (2005). Everyday competence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as mediators or moderators?. *Ageing and Mental Health, 9*(2), 177-183.

Clements, R. (1999). Prevalence of alcohol-use disorder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3), 111 - 118.

Cole, G., Tucker, L., & Friedman, G. M. (1990).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life-events and

perceived stress. *Psychological Reports, 67*(2), 587-591.

Conger, J. J. (1956).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2), 296-305.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_____,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1992a).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_____, _____, _____, & Windle, M. (1992b).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2), 123-132.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W. H. Freeman.

Creed, P. A., & Macintyre, S. R. (2001). The relative effects of deprivation of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on the well-being of unemployed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4), 324-331

Critchlow, B. (1986). The powers of John Barleycorn: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alcohol on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1*(7), 751-764.

Dawson, D. A., & Grant, B. F. (1993). Gender effects in diagnosing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2), 298-307.

Durkin, K. K., Wolfe, T. W., & Clark, G. (1999). Social bond theory and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 multivariate

analysis. *College Student Journal, 33*(3), 450-461.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Norton.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56*(2), 186 - 193.

Ewing, JA. (1984). Detecting alcholism: The Cage questionnaire. The *Jouran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2*(14), 1905-1907.

Farber, P. D., Khavari, K. A., &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6), 780-781.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Frank, S. H. & Zyzanski, S. J. (1988).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26*(5), 533-539.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s, 56*(3), 218-226.

Ganley, R. (2002). The psychological impact of joblessness. *Australian Social Policy, 37*(3), 179-200.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thinking about drinking. In H.T. 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 181-226). New York: The Guilford Publications,

Goldman, D. P., & Lakdawalla, D. N. (2005). A theory of health

disparities and medical technology.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1), 1-30.

Goldsmith, A., Veum, J. R., & Darity, W. (1997). Unemployment, jobless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Theory and evidence.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6*(2), 133 - 158.

Green, A. C., Freeborn, K. D., & Polen, R. M. (2001). Gender and Alcohol Use: The role of social support, chronic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4*(4), 383-399.

Gunn, H. (2001). An Examination of Domestic Violence in an African American Community in North California: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Black Studies, 31*, 790-811.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5), 719-759.

Higgins, R. L., & Frazell, K. (1981). Arousal in alcoholics and social drinkers progressing through a drinking seq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6*(7), 1223-1231.

Holahan, C. J., Moos, R. H., Holahan, C. K., Cronkite, R. C., & Randall, P. K. (2001). Drinking to cope, emotional distress and alcohol use and abuse: a ten-year mode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2), 190-198.

Hooker, K. (1991). Change and stability in self during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n intraindividual study using P-technique fact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2), 209-233.

Horwitz, A. V., & White, H. R. (1987).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2), 158-170.

Isen, A. M. (2002). Missing in action in the AIM: Positive affect's facilitation of cognitive flexibility, innovation, and problem solving. *Psychological Inquiry, 13*(1), 57-65.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Vol. 1). CUP Archive.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Vol. 2). New York:Henry Holt.

Johnston, L.D., O'Malley, P.M. & Bachman, J.G. (1996)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4, Vol. II: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Rockville, MD: NIAAA.

Jones-Webb, R. (1998).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s among African-Americans: recent finding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2*(4), 260-264.

Kahng, S. K. & C. Mowbray (2005). Assessment of Self-Esteem Among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esting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Theory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1*(3-4), 83-104.

Kandel, D.B., Johnson, J.G., Bird, H.R., Canino, G., Goodman, S.H., Lahey, B.B., Regier, D.A. & Schwab-Stone, M. (1997) Psychiatric disorder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Methods for the Epidemiology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Disorders (MECA)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21-132.

Karwacki, S. B., & Bradley, J. R. (1996). Coping, drinking motives, goal attainment expectancies, and family models in relation

to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6*(3), 243 - 255.

Katz, J. J., Weiner, H., Gallagher, T. G., & Hellman, L. (1970). Stress, distress and ego defenses: Psychoendocrine response to impending breast tumor biops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3*(2), 131-142.

Keltner, D., & Kring, A. M. (1998). Emotion, social function, and psychopat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20-342.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 (1987).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17*(4), 949-961.

_____, _____, _____(1989). Unemployment, reemployment, and emotional functioning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4), 648-657.

Kidorf, M., & Lang, A. R. (1999).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alcohol expectancies on stress-induced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3*(2), 134 - 142.

Kim, S. K., Lee, S. K., Kim, M. K., & Lee, S. I., (2007). The genetic and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drinking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6*(4), 357-364.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Kokko, K., & Pulkkinen, L. (1998).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or Effec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5*(4), 205 - 217.

Lantz, P. M., House, J. S., Lepkowski, J. M., Williams, D. R., Mero, R. P., & Chen, J. (1998).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mortality: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rospective study of US adul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9*(21), 1703 - 1708.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igh, B. C. (1989). In search of the seven dwarves: Issues of measurement and meaning in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5*(3), 361-373.

Levine, S. R., Wyer Jr, R. S., & Schwarz, N. (1994). Are you what you feel? The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self judgm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63-77.

Link, B. G. (1987). Understanding labeling effects in the area of mental disorders: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expectations of rej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96-112.

_____,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400-423.

_____, Struening, E. L., Neese-Todd, S., Asmussen, S., & Phelan, J. C. (2001).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Services, 52*(12), 1621-1626.

_____, _____, Rahav, M., Phelan, J. C., & Nuttbrock, L. (1997). On stigma and its consequence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men with dual diagnoses of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 177-190.

Litva, A. & Eyles, J. (1994). Health or Healthy: Why people are not sick in a Southern Ontarian tow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8), 1083-1091.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Maisto, S. A., Carey, K. B., & Bradizza, C. M. (1999). Social learning theory. In K. E. Leonard, & T. How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2nd ed.) (pp. 106 - 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Michel, W., & Morf, C. (2003). The self as a psycho-social dynamic processing system:A meta perspective on a century of the self in psychology. In Leary, M. R., & Tangney, J. P.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1st ed.) (pp. 15-4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Midanik, L. T. & Clark, W. B. (1994).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of US drinking patterns in 1990: description and trends from 1984.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8), 1218-1222.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Mulford, H. A., & Miller, D. E. (1963). Preoccupation with Alcohol and Definitions of Alcohol. A Replication Study of Two Cumulative Scales.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4*(4), 682-696.

Murphy, G. C., &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1), 83-99.

Needham, L. B. (2007). Gender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during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5*(6), 1166-1179.

Neugarten, B. L. (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7), 887-894.

O'Hare, T. (199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anxiety i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Addictive Behaviors, 15*, 561 - 566.

_____. (1997). Replicating the College Alcohol Problem Scale (CAPS) with college first offend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4,* 383 - 387.

_____, & Sherrer, M. V. (2000). Co-occurring stress and substance abuse in college first offend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1), 29-44.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Oslin, D. W. (2004). Late-life alcoholism: issues relevant to the geriatric psychiatrist.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12*(6), 571-583.

Owens, T. J. (1993). Accentuate the positive-and the negative: Rethinking the use of self-esteem, self-deprecation, and self-confid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 288-299.

_____.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Patock-Peckham, J. A., Hutchinson, G. T., Cheong, J., & Nagoshi, C. T. (1998). Effect of religion and religiosity on alcohol use in a college student sampl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49*(2), 81-88.

Paul, K. I., & Moser, K. (2009). Unemployment impairs mental health: Meta-analy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3), 264-282.

Pearlin, L. I.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In H. B. Kaplan(Ed.),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_____,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Petty, R. E., Wegener, D. T., & Fabrigar, L. R. (1997).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609-647.

Pierce, R., Frone, M., Russell, M., & Cooper, L. (1994). Relationship of Financial Strain and Psychosocial Resources to Alcohol Use and Abuse: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and Drinking Moti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91-308.

Pohorecky, L. A. (1991). Stress and alcohol interaction: an update of human research. *Alcoholism: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5*(3), 438-459.

Rogers, B., Korten, A. E., Jorm, A. F, Jacomb, P. A., Christensen, H. & Henderson, A. S. (2000). Non-linear relationships in associations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alcohol use.

Psychological Medicine, 30, 421-432.

Rohsenow, D. J. (1982). Social anxiety, daily moods, and alcohol use over time among heavy social drinking men. *Addictive Behaviors, 7,* 311 - 315.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_____(1979). *Conceiving the Self.* Florida: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_____,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Russell, M., Cooper, L., Frone, M., & Pierce, R.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alcohol and blood pressure in community-based samples of Black and Non-Blacks. *Alcohol Research & Health*, *23*, 299-307.

Sayette, M. (1999). Does drinking reduce stress? *Alcohol Research & Health, 23*, 250-255.

Schwartz, R. M., & Garamoni, G. L. (1986). A structured model of positive and negative states of mind: Asymmetry in the internal dialogue. In P. C. Kendell (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5. pp. 1-62). New York: Academic Press.

Seeman, M., & Seeman, A. Z. (1992). Life strains, alienation, and drinking behavior.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6*(2), 199-205.

Shamir, B. (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 61-72.

Sheeran, P., Abrams, D., & Orbell, S. (1995) Unemploy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A social-comparison theory approach.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2). 65-82.

Smith, G. T., & Goldman, M. S. (1995).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the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In G. M. Boyd, J. Howard, & R. A. Zucker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p. 85 - 10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Stewart, S. H., & Devine, H. (2000).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495 - 511.

_____, Zvolensky, M. J., & Eifert, G. H. (2001). Negative-reinforcement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and increased drink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57 - 171.

Supple, A. J., Su, J., Plunkett, S. W., Peterson, G. W., & Bush, K. R. (2013). Factor structure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5), 748-764.

Thombs, D. L., & Beck, K. H. (1994). The social context of four adolescent drinking patterns. *Health Education Research, 9*(1), 13 - 22.

Tiggemann, M., & Winefield, A. H. (1984).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mood,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ve affec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1), 33-42.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Turner, H. (1990). Role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87-110.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ontemporary Sociology, 18*(4), 645-646.

Ulrich, O. (2009).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low self-esteem and stressful events on depression: Findings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7*(2), 307-321.

Vallacher, R. R., & Nowak, A. (2000). Landscapes of self-reflection: Mapping the peaks and valleys of personal assessment. In A. Tesser, R. B. Felson, & J. M. Suls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 and identity.* (pp. 35 - 6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ik, P., Carrello, P., Tate, S., & Field, C. (2000). Progression of consequences among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91 - 101.

Vuori, J., & Silvonen, J. (2005). The benefits of a preventive job search program on re-employment and mental at 2-year follow-up.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8*(1), 43-52.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ostillow,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21), 1672-1677.

_____, Dowdall, G., Davenport, A., & Rimm, E. (1995). A gender-specific measure of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 982 - 985.

_____, Lee, J. E., Kuo, M., & Lee, H.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 199 - 210.

White, H., & Labouvie, E. (1989). Towards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30 - 37.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Winkleby, M. A., Jatulis, D. E., Frank, E., & Fortmann, S. P. (1992).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how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contribute to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2*(6), 816 - 820.

Wood, W. (2000). Attitude Change: Persuation and social influ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539-570.

Wood, M. D., Nagoshi, C. T., & Dennis, D. A. (1992). Alcohol norms and expectations as predictors of alcohol use an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8*, 461 - 47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_____. (2018).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Young, R. M., Oei, T. P., & Knight, R. G. (1990). The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revisited: An alcohol expectanc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1), 31-40.

Zhai, H., Yang, Y., Sui, H., Wang, W., Chen, L., Qiu, X., Yang, X., Qiao, Z., Wang, L., Zhu, X., & Yang, J. (2015). Self-Esteem and Problematic Drinking in China: A Mediated Model. *PLoS ONE*, *10*(10), 1-11.

Abstract

The Effect of Youth Unemployment on Problem Drinking.

: Mediating Effects of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LEE, Sub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unemployment among young adults affects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based on Lazarus & Folkman's stress-coping model and to identify whether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The youth strive to have jobs and to achieve the developmental task of belonging in their life cycles, which can cause stress. They are prone to drink alcohol as a way of dealing with stress to reduce the tension and negative emotions. An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problem drinking in youth are important because even if the level is low, it can affect rest of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stress-coping model, stress depends on cognitive process which is a combination of external environmental needs and individual resources. Thu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stressful environment are important. In other words, even if individuals are equally unemployed, one can find it stressful while others do not. This is because cognitive appraisals vary depending on the causative antecedents that individuals have for stress and the coping behaviors that are also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Here, the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re in charge of cognitive appraisals according to causative antecedents.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that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could change the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or, an unemployment, and thus change the level of emotional-focused coping behavior, a problem drinking. Identifying such mediators between stress and coping is important because it can provide alternatives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impacts of stress.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youth unemployment affect problem drinking levels? Second, does the unemployment affect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hat is, is positive(negative) self-esteem of unemployed youth lower(higher) than that of the employed youth? Third, does the unemployment of youth affect problem drinking levels through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13th data (2019) of the Youth Panel (YP 2007) was exploited and 2,682 young people aged 25 to 39 were analyzed who responded to all of questions regarding major variables, except fo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e main variables were unemployment as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self-esteem and negative self-esteem as mediators, problem drinking levels as dependent variable, gender, age, education levels, household income, marriage status, relig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control variables. Baron & Kenny's three-stage mediation effect analysis through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and Sobel-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youth unemploy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In other words, unemployed young adults showed a higher level of problem drinking than those employed.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stress-coping model that unemployment causes tension and acts as stress in young people, raising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Second, unemployment was not associated with a positive self-esteem, but 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egative self-esteem. This indicates that unemployment causes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ch are increased the negative self-esteem for individuals. Third, positive self-esteem did not medi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but negative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In other words, unemployed young people have higher negative self-esteem than those employed, and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increases through this increased negative self-esteem. Sobel-test result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s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 stress-coping model, and demonstrates that negative self-esteem mediates the impact.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importance of cognitive evaluation according to causal prior variables claimed by Lazarus & Folkman (1984) has been verified, especially with the subtype of self-esteem. Second,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ocused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results of unemployment and examined the relevance of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This is linked to the discussion that for individuals, jobs mean beyond sources of income and also affect psychological internal structures such as self-concept and identity.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creased problem drinking and negative self-esteem, the specific negative effects of unemployment, the study contributed to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of unemployed young people, moving from the existing discourse of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loss of income due to unemployment. Third, by accepting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hypothe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self-este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confirming that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were properly applied to young Koreans. Fourth, the 13th data (2019) of the Youth Panel (YP 2007) used in this study are national representative panel data sampled from seven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nine provinces including Jeju Island. Therefore, this study relatively secured the representation and external validity of the samples.

This study also provides both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intervene youth in problem drinking and confirm that unemployment should b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ven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unemployed young adults' problem drinking and link them with employment centers. Second, in an intervention for problem drinking, efforts to relieve negative self-esteem are required. This can

be related to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ventions, one of the non-drug treatments for alcoholic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unselings and programs to intervene i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is of unemployed young people. Currently, there are consulta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s for unemployed young people in the Regional Job Cen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some local governments. But, there is a gap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service benefits. Efforts to replenish manpower and resources are requested to solve this problem.

Keywords : Youth Unemployment, Problem Drinking,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Mediating Effect, Stress-Coping Model

Student Number : 2019-24428